

## S. A. Moffett, and Early Days at Kyung Sin School

My father, Dr. Samuel A. Moffett, is best remembered as the pioneer Protestant missionary in North Korea, and it is often forgotten that his first three years in Korea, from 1890 to 1893 were spent mostly in Seoul. It ~~is~~ was in this period that he became the second principal of what is now Kyung Sin High School.

Dr. Moffett landed in Chemulpo (Inchon) on his 26th birthday, January 25, 1890, and made his way by sedan chair and pony up to Seoul. He was dismayed to find that the gates to the city were already closed, for it was dusk. Fortunately, Dr. John Heron, a fellow missionary, had met him, and Dr. Heron was physician to the King. Dr. Heron's soldier-guard, appointed by the King, managed to persuade the Keeper of the West Gate to hold the gate open just enough for the two missionaries and their friends to squeeze through.

Seoul was then only an over-grown village of 30,000 one-story houses, and only three wide streets. There were tigers and leopards in the mountains, sometimes even inside the city wall on the north side of town. The entire population numbered only about 150,000 people. What a contrast with modern Seoul, the world's fifth largest city, and its population of six million.

On his second Sunday in Seoul, Dr. Moffett was asked to lead the Sunday School at a little school that Dr. Underwood had started three and a half years earlier. Like Seoul itself, the school ~~itself~~ too, then, was not much to look at: a little handful of boys, mostly without fathers or mothers, meeting in a little house on the mission compound in Chung Dong, behind the DukSoo Palace.

"There must be no hymn singing at the school," Dr. Moffett was warned. The American Minister (Ambassador) had asked the missionaries to keep their Christian services very quiet so as not to arouse Government suspicions about their work. There was no religious freedom in Korea in those early days, and it was still technically illegal to carry on foreign religious work.

That first Sunday father learned more from the boys, I dare say, than they from him. ~~There were about 20 in the class, and~~ He decided it was a good time for him to begi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So he posted up a large picture scroll, and pointing to this and that in the picture, would ask, "이 것 무엇요". The 20 or so students in the school would laugh and shout out the answers, and this is the way he learned Korean in the days before English-Korean dictionaries and grammars were written. "A good teacher," he used to say, "must always be willing to learn from his students".



Before he had been in Seoul many months, Dr. Underwood asked my father to take charge of the school. I have a faded yellow sheet of paper in my possession, with his hand-written report for the year Jan. 1, 1890 to 1891. In Dr. Underwood's absence, Mr. Davies, Dr. Heron, Mr. Gifford and Mr. Moffett had all taken turns superintending the school. The year started with 29 pupils, who were being taught Chinese, Korean phonetic (Eunmun or Hankul), and English. But in September Moffett and Gifford completely reorganized the institution, recommending that what had been little more than an orphanage be converted into a regular school, emphasizing Korean studies rather than English, and that the students be required to pay part of their own support. Korean History was to be added to the curriculum, and music, and even Korean archery.

Students rose at 5 a.m., and had an hour and a half of classwork from 6 to 7:30 a.m. before breakfast at 7:30. From 8 to 9 a.m. they attended chapel services. The second class session was from 9 a.m. to 1 p.m., followed by dinner from 1 to 2 p.m. One hour of Bible teaching followed, until 3 p.m. when the boys were dismissed for two hours of recreation and work. Then they reassembled at 5 p.m. for another hour of study before supper at 6 p.m. "The teachers," my father wrote, "are to receive the same food as the boys. Anything extra they must provide themselves". It was an early lesson in democracy.

He was to be at Kyung Sin school for only a few short years, but they were important years, and the lessons he learned from his experiences there he remembered all the rest of his forty-six years in Korea.

-- Samuel Hugh Moffett  
Seoul, Korea  
December 1972

S.A. Moffett.

1896-98; 1901-02. Contact with Ahn Chang-ho.

Ahn born near Pyeongyang, came south in 1896. ~~to school~~. Converted by F.S. Miller's street entreaty to come and learn at Kyung Sin school. Influenced by Moffett. See 1896-98 (?) picture of Kyung Sin school - Ahn (as recent graduate and now teacher) wearing brass hair hat.

1901-02. Is reported to have differed with Moffett on importance of raising Korean funds to build churches and support workmen. Ahn felt more stress should be placed on education - too much time wasted on preaching. Moffett stressed church self-support - clashes with Ahn.

When Ahn went to America, friends insist on going with him. At Incheon they meet Mrs. F.S. Miller who is shocked that they are going unmarried. She quickly arranges a marriage (at Severance?).

- Conversation with Arthur L. Gardner, researcher.  
Sund. Nov. 24, 1972.



# 제2의 韓國人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 최초의 牧師양성소 「長老會神學校」 설립

平壤市 宣敎館

## 關西開化의 역군 SAMUEL A. MOFFETT 사뮤엘 A 모페트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 新學의 전당 崇實崇義학교 開西開化의 선구자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 大同江가서 學習班 조직하고 성경 가르쳐...두아들 韓國에 남아 敎授·醫師로 활약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한글문화의 새 바람

### 영국 하원의원과 펜클럽 회장을 역임한 허버트 G 웰즈 작품 外五人

# 세계 교육 과학 명작

日本・英國 및 全美國 방송・텔레비・영화도 한 세계적 명작!

1. 우주 F B I
2. 북극을 건 말
3. 대륙의 열대
4. 무녀의 불꽃
5. 타인의 미시인
6. 위대한 속물
7. 지구인의 불꽃
8. 과학의 힘
9. 사탄의 불꽃
10. 불꽃의 불꽃
11. 불꽃의 불꽃
12. 불꽃의 불꽃

모든 학파의 학습을 돕고 과학과 문명의 진보를 위한 명작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 409 우편번호 110번 本社 ☎ 0516  
서울 ☎ 3939 ☎ 0126 ☎ 7788 ☎ 3310 ☎ 1035 ☎ 3430 ☎ 3965  
부산 ☎ 1741 ☎ 6860 ☎ 4842 ☎ 2835 ☎ 2926 ☎ 2465  
대구 ☎ 3481 ☎ 0417 ☎ 4330 ☎ 4444 ☎ 267 ☎ 2968  
광주 ☎ 1743 ☎ 3626 ☎ 2111 ☎ 3525 ☎ 6881 ☎ 3502  
군산 2847 ☎ 784 ☎ 1119 ☎ 6812 ☎ 3312 ☎ 5441  
창원 261 ☎ 2835 ☎ 2381 ☎ 3220 ☎ 2301 ☎ 2650  
대전 944 ☎ 3768 ☎ 2879

국판 특수 모조지 원색화도 아트  
지화양장 금박 울라스 전12권 **값 9,000원**

## 새마을사



1 甲午東國革命의 序幕 (1893)

倭洋賊을掃破하리라

- 1990년대에 접어들면
- 서, 우리나라의 근대
- 적인 사회개혁운동의
- 기점(基點)을 이루
- 게될 東學예명의 서
- 막(序幕)이 서서히
- 오른다. 교조(敎組)
- 崔時亨의 신원(伸冤)
- 운동으로 비롯된 종
- 학교도들의 심장치열
- 은 움직임은, 1993년
- 3월『報恩集』에서
- 최재암장의 (元澤堂)

## 忠孝立節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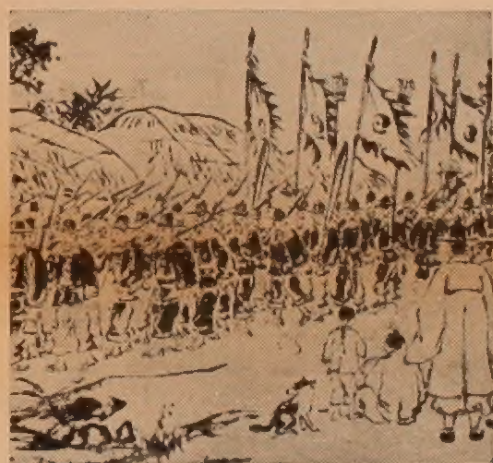
◇報恩集會の趣旨

資料로 역

韓國近代百年의 爭点 16

- (輓)의 기치(旗幟)
- 를 뚜렷이 함으로써
- 마침내 전국적인 불
- 민봉기(農民蜂起)로
- 급선회(急旋迴)하게
- 된다. 여기 소개하는
- 「輓惠集」의 선언
- 문은 혁명의전야(前
- 夜)를 알리는 횃불
- 이었다는 점에서 매
- 우 장으로 뜻을 짓
- 는다.

有事患難때  
기꺼이

[illegible]

◆東學風을 진압하러 가는 정무관

## 죽음은 臣下의 도리"

[illegible]

評說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趙秉式、백성 잡아가두고 家産몰수、公私金 75만냥 횡령

國都는 이제 夷狄의 소굴化... 5년 전 宗社의 위협이朝夕에 달렸구

“國都는 이제 夷狄의 소굴化... 5백년 宗社의 위침이 朝夕에 달렸구.”

[illegible]

의  
도리

[illegible]

정통 2년 1월 15일

고려(高麗) 안평대위(安平大尉)  
연산(連山) 김충현(金忠顯)의  
가(歌)에 나타난 문예사상(文藝思想)

大：社會運動の人 三三革命으로 발전  
小：社會運動의 人 三三革命으로 발전

[illegible]



# 讀書新聞

4월 29일 1973 125호

會 長 鄭 昌 業  
發行人 金 奉 圭  
總編輯 金 奉 圭  
社址 釜山 廣安路 121번지  
電話 051-54 4961  
051-54 4962  
051-54 4963  
051-54 7983  
051-54 7984  
051-54 7985  
051-54 7986  
051-54 7987  
051-54 7988  
051-54 7989  
051-54 7990  
051-54 7991  
051-54 7992  
051-54 7993  
051-54 7994  
051-54 7995  
051-54 7996  
051-54 7997  
051-54 7998  
051-54 7999  
051-54 8000

逝去 후 최초로 独占公開되는 海公 申翼熙 선생의 日記

生活의 發見 / 「自由와 自律속에...」 金顯哲  
現代思想의 氣流 / 人種과 性의 平等性  
自由敎養大學 / 농업과 경제 개발  
學術踏査記 / 說話의 脈脈 따라 · 張德順  
名作에 나타난 青春像 / 斷絶된 世代의 고통

알리직 7층당의정  
**비라엠**  
종합영양제  
당인정  
파리

매주 日曜日 발행) ◇ 1部 50원 ● 傳統과 現代의 對話 / 傳統演劇의 현대적 繼承 · 呂石基

## 생각하는 生活

근래에 와서 아랑어가 마치 세계 공통어의 인상을 주  
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이나 서쪽에서 생산되는 상품  
의 용어까지 의외로 영어와 나란히 아랑어가 적여져  
있다.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친구의 34개국이 지금  
아랑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슬람 세계에 인접해 있던 유럽인들은 일찍이 찬란  
한 이슬람 문화를 흡수하여 자기의 민족 문화의 발전에  
영양분으로 섭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과거 우리는 유물론과 만물을 지배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인류역사의 대맥(大脈)을 유물론자가 이끌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에 걸쳐서 국  
가와 문화를 유지해온 이슬람교도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우리는 단정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유리의 중세 문화가 암흑의 구렁텅이의 빠져있을 때  
세계는 이슬람 문화를 기둥으로 하여 움직였다는 역사  
적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어느 면에서는 이슬람 문화  
가 유럽 문화와 비견될 만큼 세계 문화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의 전제정치(專制政治)에 무시당하고, 피식민지  
(被植民地)로서 고통을 받았던 이슬람교도들은 제1차 세  
계 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  
의 파도를 타고 부활의 경  
을 걷다가 결국에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終戰)이란  
역사적 광명을 받고 속속  
甦醒了.

이 성령 이슬람교가 세계의 모든 민족을 포용(包容)하려  
한 데서 석유가 분출(噴出)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가  
난했던 메카는 「사막의 시대」의 막을 내리고 지상의  
나환을 세웠다.  
뒤늦게나마 우리는 그들의 종교·문화·언어에 관심  
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물론 5월 서울에 이슬람 선  
진가들이 온다.

## 和合의 숨결

시장(市場)이다.  
음식은 아랍지역에 많은 화성을 유하시키고 있다. 그  
리고 아랍지역 문화에는 이들 유물들을 재봉하여 의  
복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추구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한 행위이다. 우리의 제도도 이런 방법이 필요하  
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척에 있어서 미로와 일련의 편  
중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편중에서 탈피, 이슬람권 국  
가와도 긴밀한 유대를 강화  
해야 한다. 그들은 석유 왕  
국이지만 그 외의 모  
든 분야는 세계에서 수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나라다.  
다라서 그들은 바로 우리의  
친구이다.

이슬람교가와 친선협력면 우선 이슬람교를 이해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 구미제국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  
해서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산이론이다.  
7.2의 인구를 가진 이슬람권 국가들을 소홀히 해서  
는 안된다. 소명(召命)이 이제 우리의 제명(제명)이다. 이  
소명을 민족적인 발전의식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합의사적 관계를 우리는 맺어졌다.  
지구의 동서(東西)는 지리적 한계로 이슬람 문화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한계지만 고대사대에 이미 이  
슬람인이 우리나라로 왔었고 세종대왕 즉위식에도 이  
슬람인이 참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의  
친교(親交)로 보아야 마땅한 것이다.  
(鄭 圭 士)

權 純 永



原色에의 招待 — 「한국미술 2천년展」의 現場

紙上「韓國美術 2千年展」青華白磁秋草文壺(朝鮮 崔淳雨)



우리나라에서는 파타라고 하면 이레 화환하고 호사  
스러운 연회(宴會)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미약하고 그것만 일삼는 생활의 한 부분일 뿐  
로 호사스런 옷이로써 자랑하는 자는 아니다. <복음>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15일간  
정식: 1월 15일(토) 1월 16일(일) 1월 17일(월) 1월 18일(화) 1월 19일(수) 1월 20일(목) 1월 21일(금) 1월 22일(토) 1월 23일(일) 1월 24일(월) 1월 25일(화) 1월 26일(수) 1월 27일(목) 1월 28일(금) 1월 29일(토) 1월 30일(일) 1월 31일(월) 2월 1일(화) 2월 2일(수) 2월 3일(목) 2월 4일(금) 2월 5일(토) 2월 6일(일) 2월 7일(월) 2월 8일(화) 2월 9일(수) 2월 10일(목) 2월 11일(금) 2월 12일(토) 2월 13일(일) 2월 14일(월) 2월 15일(화) 2월 16일(수) 2월 17일(목) 2월 18일(금) 2월 19일(토) 2월 20일(일) 2월 21일(월) 2월 22일(화) 2월 23일(수) 2월 24일(목) 2월 25일(금) 2월 26일(토) 2월 27일(일) 2월 28일(월) 2월 29일(화) 2월 30일(수) 3월 1일(목) 3월 2일(금) 3월 3일(토) 3월 4일(일) 3월 5일(월) 3월 6일(화) 3월 7일(수) 3월 8일(목) 3월 9일(금) 3월 10일(토) 3월 11일(일) 3월 12일(월) 3월 13일(화) 3월 14일(수) 3월 15일(목) 3월 16일(금) 3월 17일(토) 3월 18일(일) 3월 19일(월) 3월 20일(화) 3월 21일(수) 3월 22일(목) 3월 23일(금) 3월 24일(토) 3월 25일(일) 3월 26일(월) 3월 27일(화) 3월 28일(수) 3월 29일(목) 3월 30일(금) 3월 31일(토) 4월 1일(일) 4월 2일(월) 4월 3일(화) 4월 4일(수) 4월 5일(목) 4월 6일(금) 4월 7일(토) 4월 8일(일) 4월 9일(월) 4월 10일(화) 4월 11일(수) 4월 12일(목) 4월 13일(금) 4월 14일(토) 4월 15일(일) 4월 16일(월) 4월 17일(화) 4월 18일(수) 4월 19일(목) 4월 20일(금) 4월 21일(토) 4월 22일(일) 4월 23일(월) 4월 24일(화) 4월 25일(수) 4월 26일(목) 4월 27일(금) 4월 28일(토) 4월 29일(일) 4월 30일(월) 5월 1일(화) 5월 2일(수) 5월 3일(목) 5월 4일(금) 5월 5일(토) 5월 6일(일) 5월 7일(월) 5월 8일(화) 5월 9일(수) 5월 10일(목) 5월 11일(금) 5월 12일(토) 5월 13일(일) 5월 14일(월) 5월 15일(화) 5월 16일(수) 5월 17일(목) 5월 18일(금) 5월 19일(토) 5월 20일(일) 5월 21일(월) 5월 22일(화) 5월 23일(수) 5월 24일(목) 5월 25일(금) 5월 26일(토) 5월 27일(일) 5월 28일(월) 5월 29일(화) 5월 30일(수) 5월 31일(목) 6월 1일(금) 6월 2일(토) 6월 3일(일) 6월 4일(월) 6월 5일(화) 6월 6일(수) 6월 7일(목) 6월 8일(금) 6월 9일(토) 6월 10일(일) 6월 11일(월) 6월 12일(화) 6월 13일(수) 6월 14일(목) 6월 15일(금) 6월 16일(토) 6월 17일(일) 6월 18일(월) 6월 19일(화) 6월 20일(수) 6월 21일(목) 6월 22일(금) 6월 23일(토) 6월 24일(일) 6월 25일(월) 6월 26일(화) 6월 27일(수) 6월 28일(목) 6월 29일(금) 6월 30일(토) 7월 1일(일) 7월 2일(월) 7월 3일(화) 7월 4일(수) 7월 5일(목) 7월 6일(금) 7월 7일(토) 7월 8일(일) 7월 9일(월) 7월 10일(화) 7월 11일(수) 7월 12일(목) 7월 13일(금) 7월 14일(토) 7월 15일(일) 7월 16일(월) 7월 17일(화) 7월 18일(수) 7월 19일(목) 7월 20일(금) 7월 21일(토) 7월 22일(일) 7월 23일(월) 7월 24일(화) 7월 25일(수) 7월 26일(목) 7월 27일(금) 7월 28일(토) 7월 29일(일) 7월 30일(월) 7월 31일(화) 8월 1일(수) 8월 2일(목) 8월 3일(금) 8월 4일(토) 8월 5일(일) 8월 6일(월) 8월 7일(화) 8월 8일(수) 8월 9일(목) 8월 10일(금) 8월 11일(토) 8월 12일(일) 8월 13일(월) 8월 14일(화) 8월 15일(수) 8월 16일(목) 8월 17일(금) 8월 18일(토) 8월 19일(일) 8월 20일(월) 8월 21일(화) 8월 22일(수) 8월 23일(목) 8월 24일(금) 8월 25일(토) 8월 26일(일) 8월 27일(월) 8월 28일(화) 8월 29일(수) 8월 30일(목) 8월 31일(금) 9월 1일(토) 9월 2일(일) 9월 3일(월) 9월 4일(화) 9월 5일(수) 9월 6일(목) 9월 7일(금) 9월 8일(토) 9월 9일(일) 9월 10일(월) 9월 11일(화) 9월 12일(수) 9월 13일(목) 9월 14일(금) 9월 15일(토) 9월 16일(일) 9월 17일(월) 9월 18일(화) 9월 19일(수) 9월 20일(목) 9월 21일(금) 9월 22일(토) 9월 23일(일) 9월 24일(월) 9월 25일(화) 9월 26일(수) 9월 27일(목) 9월 28일(금) 9월 29일(토) 9월 30일(일) 10월 1일(월) 10월 2일(화) 10월 3일(수) 10월 4일(목) 10월 5일(금) 10월 6일(토) 10월 7일(일) 10월 8일(월) 10월 9일(화) 10월 10일(수) 10월 11일(목) 10월 12일(금) 10월 13일(토) 10월 14일(일) 10월 15일(월) 10월 16일(화) 10월 17일(수) 10월 18일(목) 10월 19일(금) 10월 20일(토) 10월 21일(일) 10월 22일(월) 10월 23일(화) 10월 24일(수) 10월 25일(목) 10월 26일(금) 10월 27일(토) 10월 28일(일) 10월 29일(월) 10월 30일(화) 10월 31일(수) 11월 1일(목) 11월 2일(금) 11월 3일(토) 11월 4일(일) 11월 5일(월) 11월 6일(화) 11월 7일(수) 11월 8일(목) 11월 9일(금) 11월 10일(토) 11월 11일(일) 11월 12일(월) 11월 13일(화) 11월 14일(수) 11월 15일(목) 11월 16일(금) 11월 17일(토) 11월 18일(일) 11월 19일(월) 11월 20일(화) 11월 21일(수) 11월 22일(목) 11월 23일(금) 11월 24일(토) 11월 25일(일) 11월 26일(월) 11월 27일(화) 11월 28일(수) 11월 29일(목) 11월 30일(금) 12월 1일(토) 12월 2일(일) 12월 3일(월) 12월 4일(화) 12월 5일(수) 12월 6일(목) 12월 7일(금) 12월 8일(토) 12월 9일(일) 12월 10일(월) 12월 11일(화) 12월 12일(수) 12월 13일(목) 12월 14일(금) 12월 15일(토) 12월 16일(일) 12월 17일(월) 12월 18일(화) 12월 19일(수) 12월 20일(목) 12월 21일(금) 12월 22일(토) 12월 23일(일) 12월 24일(월) 12월 25일(화) 12월 26일(수) 12월 27일(목) 12월 28일(금) 12월 29일(토) 12월 30일(일) 12월 31일(월)



# 金 顯 哲

<5.16 慶學會 이사장>

우물쭈물 신이로써 대우를 받으면서...  
한편 비관증적  
한편 비관증적...  
한편 비관증적...  
한편 비관증적...



## 自由와 自律속에

### 근면과 自立精神은 성공의 母胎

근면과 自立精神은 성공의 母胎...  
근면과 自立精神은 성공의 母胎...  
근면과 自立精神은 성공의 母胎...



### 바보만이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를 즐긴다

바보만이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를 즐긴다...  
바보만이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를 즐긴다...  
바보만이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를 즐긴다...

### 自勉과 自由

自勉과 自由...  
自勉과 自由...  
自勉과 自由...

### 「권자」가

「권자」가...  
「권자」가...  
「권자」가...



## Three Generations in the Ministry

# Preaching Is a Moffett Tradition

By BARKER HOWLAND

The old adage "like father, like son" applies to the Rev. R. Blair Moffett, pastor of historic Silver Spring Presbyterian Church, a third generation ordained Presbyterian minister.

In fact, the Moffett family has played a prominent role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for the last three generations.

The Silver Spring pastor's grandfather, the Rev. Dr. Samuel A. Moffett, was a missionary to Korea and established much of the Presbyterian activity that is still being carried on. Four of the sons of the Rev. Samuel A. were ordained to the ministry, and the fifth, Dr. Howard Moffett, is a medical missionary in Taegu,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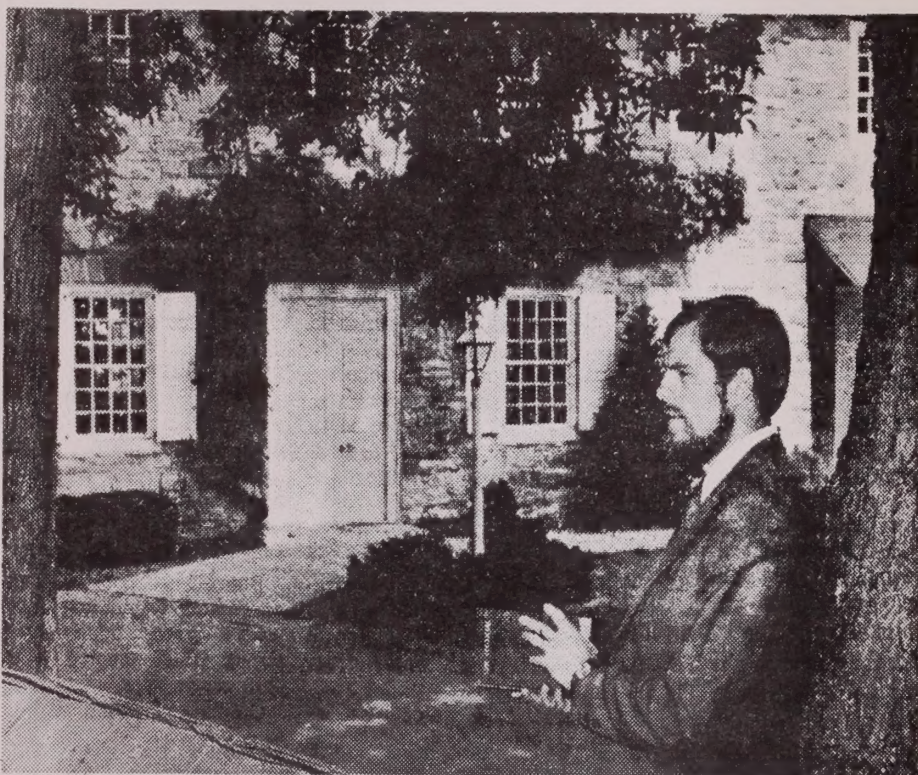
The Rev. Blair Moffett's father, the Rev. James Moffett, is pastor of the North Shore Presbyterian Church, Long Island. One uncle, the Rev. Samuel, is a well-known missionary in Korea, carrying on in the steps of his illustrious father. Another uncle, the Rev. Charles, is a pastor in Indiana. A third uncle, the Rev. Thomas, although ordained, is not connected with church work at the present time.

The third generation Moffett has cousins who are ministers and his oldest sister is married to a pastor. His only brother is an electronics engineer and his other sister has just graduated from college.

"There were other Moffetts in the ministry," said the local pastor, "but my knowledge of them is hazy for I know little of the family history before my grandfather."

In his latter years in high school, the Rev. Blair Moffett got the urge to become a minister. But he denies any pressure was placed upon him to continue in the family tradition.

"Historically speaking, a



Surveying the Past of Historic Church

The Rev. R. Blair Moffett, pastor of the church, looks at the sanctuary of Silver Spring Presbyterian Church, which was built in 1783.

son followed in his father's footsteps," he told The Patriot. "But in my family there was never any pressure put upon me to study for the ministry."

"Of course I had a positive image of clergymen because of my associations with them," he added. "My family was very happy when I chose the ministry for a lifetime work but was equally happy when my brother elected to become an electronics engineer."

The Rev. Mr. Moffett got his Bachelor of Arts degree from Marysville College, a United Presbyterian affiliated college, in 1962, and received his Bachelor of Divinity degree from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in 1966.

True to the Moffett tradition he spent a year in Korea observing the work of the missionaries but he early decided that the pastorate was his field.

While attending Princeton he worked in two churches, Bryn Mawr Presbyterian and Layayette Avenue Presbyterian, Brooklyn, N.Y. Upon graduation he was called to the Wellsboro Presbyterian Church, which he served until last year when he was called to the 239-year-old Silver Spring church as successor to the Rev. Tolbert D. Hewlett, who retired.

Looking at the challenge of the ministry today, the Rev. Mr. Moffett observed that the

church can't do much better than do what the New Testament prescribes.

"Christ gave His followers specific commands, to preach and to heal," he said. "Though the situation has changed that is still the kind of two-pronged mission for the church today — get the Word out and use its energies to bind up the wounds of individuals, groups, nations."

"After all the hullabaloo over the various parts of mission, the essence has not changed in the last 2,000 years," he said. "The church gets a lot of flack for lagging behind but it's true that people who have the courage to open up controversial issues and to undertake unpopular types of service have very often been people of the church."

The young pastor is enthusiastic about the service a historic church like Silver Spring can render to the community.

"We are in the midst of a growing suburban area," he said. "In such an area the schools and churches are usually rootless and history-less."

"I feel the Silver Spring

church was something unique to offer to suburbanites — a sense of history, a sense of being rooted. When people come to worship in our church, they have a palpable sense of worshipping where their forefathers worshipped. 'The communion of saints' becomes something real.

"This church is proud of its past, builds on its past but is not buried by its past."

"For a long time now the old residents of the area and the newcomers have got along beautifully within this church. In most churches where these two groups prevail there is friction, but at this church there is none of that fri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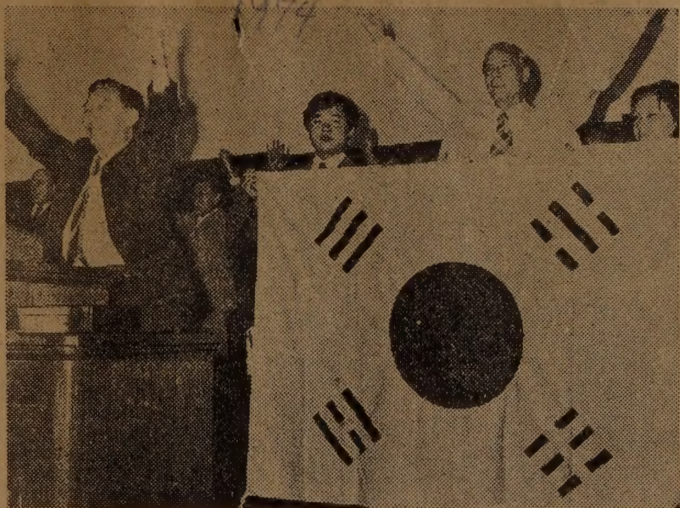
The Silver Spring congregation dates back to 1734, the same year as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Carlisle. In that year the Rev. Alexander Craighead was commissioned by the Donegal Presbytery to "preach to the people over the Susquehanna."

The present sanctuary of the church was built in 1783 and has been remodeled several times. In 1929 it was restored to its original form as a result of gifts from Vance and Henry B. McCormick, as well as Miss Anne McCormick.

The church building was originally called the Silver Spring Meeting House and got its name from the spring that belonged to a James Silver. The spring after all these years still runs clear. Although the wood in the interior is not the original, the style is authentic and the exterior stone is the original.

McCormick Memorial Hall was built in 1948 and the newest of the church buildings, the Christian Education wing, was constructed in 1960.





Korea Times Photo

An old national flag returned after 55 years excited people to shout hurrah for Korea. They are, from left, President Emeritus Woo Ho-ik of Sungjon University, student representative Kim Yong-hun, and James Moffet, son of the late Samuel Moffet who founded Sungshil School in Pyongyang, predecessor of Sungjon University, and protected the flag from Japanese colonialists.

## *U.S. Missionary Moffet's Son Returns Taeguk Flag of 1919*

A national flag of Korea, which used to be hoisted as a symbol of patriotism at a school in Pyongyang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was returned to Korea by an American who has been keeping it for 55 years.

James Moffet, son of Samuel Moffet, an early 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in Korea, delivered the national flag yesterday to Sungjon

University which succeeded Sungsil School of Pyongyang.

Samuel Moffet used to fly the flag at the school despite the rigid regulation of the Japanese colonialists, the visiting son of the late missionary explained.

He returned the flag measured 180 by 120 centimeters in a flag-raising ceremony held yesterday at the university campus.



1974

## FURTHER REPORT ON "TREASURED FLAG RETURNED"

In answer to questions generated by the article in the June *Pulse*, which told of James M. Moffett returning a historic flag to Seoul, Korea, here is additional information:

After news of the historic flag was reported in all the Seoul newspapers and TV and radio news programs, Professor Kuhn Kim of Kunguk University came forward to let SJU (Soong Jun University) know that he was one of the five who made the flag.

He told how he designed it from memories of seeing a flag when he was eleven years old. Because of imperfect memory, the flag is not exactly like the national flag seen today. And because of lack of materials, the center, which is normally blue and red, is black and red. The flag is now in the University's Museum, with other memorabilia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other four flag-makers, two have died, one—Wonchan No—is in the States, and other—Pyong-gon Pak—lives in Seoul.

We can be justly proud of the part the Moffett Family has played and is playing in the life of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Remember our own Dr. Sam Moffett and his wife in your prayers.

## Pleasu

Recent pamphlet  
Invention  
25 pages  
some pro  
life in CH  
ful of the



ence the  
seem to  
havior p

Rev.  
of this  
one com  
tion of  
longer  
sterile a  
to see C  
point the  
are frustr  
the chang  
instead o  
they view  
begin to ch  
events we  
life

WANTED

















Norman Borlaug  
세계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농학자

# UN 세계 인구會議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엔은 1975년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모나코에서 세계 인구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유엔의 1973년 인구 전망을 검토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계속적 인구增加는自滅招來

### 國家마다 억제·장려 등 意見대립

유엔은 1975년 모나코에서 열릴 세계 인구 회의에 참가할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가마다 인구 증가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다르다. 일부 국가는 인구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 국가는 인구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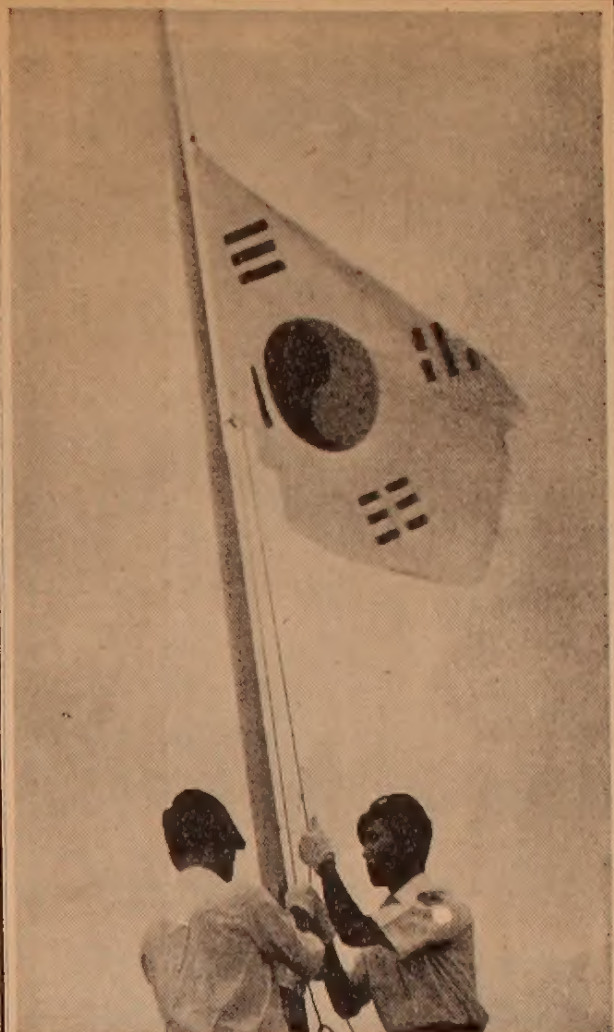
## 書評

### 六堂崔南善全集

崔南善의全集은 그의 문학적, 사상적, 예술적 성과를 총망라하고 있다. 이全集은 그의 대표작인 '六堂集'을 중심으로, 그의 시, 소설, 단편, 그리고 비평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全集은 그의 문학적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吳海鎮 <大田·學監·文化史>

吳海鎮의 '大田·學監·文化史'는 대田市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한 책이다. 이 책은 대田市의 학예사, 문화인,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대田市의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그림은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아마도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인물일 것이다.

이 글은 인구 증가와 자원의 고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인구 증가가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랑과 파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사랑이 어떻게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이 글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 글은 '退任之辯'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퇴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퇴직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있다.

이 글은 '退任之辯'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퇴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퇴직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있다.

이 글은 '退任之辯'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퇴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퇴직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있다.

제2회 국문학상 작품 모집  
국문학상은 국문학과 국문학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제2회 국문학상 작품 모집은 1974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제2회 관악창작상 원고모집  
관악창작상은 관악창작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제2회 관악창작상 원고모집은 1974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제2회 관악창작상 원고모집  
관악창작상은 관악창작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제2회 관악창작상 원고모집은 1974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제2회 국민역 본적지 단위 행정 관리 전환  
제2회 국민역 본적지 단위 행정 관리 전환은 국민역 본적지 단위 행정 관리 전환을 위한 제2회 국민역 본적지 단위 행정 관리 전환이다.